

금곡노인요양원 시설 운영위원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				
일 시	2026년 02월 06일 16시	장 소	요양원 2층 회의실	
참석자	최혜정위원장, 조영희위원, 박미영위원 신예순위원, 안신숙위원, 김정림위원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회원점명 : 2026년 1차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7분 중 6분 참석하셨습니다. ● 인사말씀(위원장) : 어제 봄 날씨였는데, 오늘은 추워졌습니다. 실내는 따뜻하고 포근하니 좋습니다. ● 개회선언(위원장) : 운영위원 7분 중 6분 참석하였음을 김정림 위원의 보고 후 개회를 선언하다. ● 보고 사항 및 회의 <p>최혜정 위원장 : 지난 회의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?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. 안신숙 위원 : 2026년 1분기 요양원 현황을 보고 하다. 최혜정 위원장 : 정원 60명인데, 입소 현원이 49명이네요. 집에서 계시는 어르신 중 밤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 위주로 지속적인 흥보가 필요하겠습니다. 김정림 위원 : 2025년도 사업 보고를 하다. 조영희 위원 : 간식은 어떤 종류로 제공되고 있는지요? 김정림 위원 : 완제품보다 제철 과일과 자연식품 위주로 제공해 드리려 하며 매주 식단표에 넣어 홈페이지와 생활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. 최혜정 위원장 : 어르신 개인별 간식이 있을 텐데, 유통기한 관리되고 있는지요? 안신숙 위원 : 베지밀 등 유통기한이 여유 있는 것으로 가져오시고, 기간이 지날 만큼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. 신예순 위원 : 훨체어 수리를 자전거포에서 한다는데, 훨체어 업체에서 들어와 수리하지 않나요? 김정림 위원 : 자체 구매한 것도 있지만, 대부분 기증받은 훨체어라서 제조사가 다양합니다. 그래서 자체 수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최혜정 위원장 : 의무팀 보고서를 보면 외진이 214회입니다. 거의 매일 외근이 있는 것 같은데, 촉탁의 처방으로 안되는지요? 안신숙 위원 : 병원 모시고 가면 거의 하루 종일 걸려 직원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, 한명의 간호선생님이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, 2025년 경우 간호선생님 4명이 어르신 필요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. 조영희 위원 : 낙상예방교육 하셨는데, 예방이 중요합니다. 최혜정 위원장 : 우레탄방수공사를 안하면 예산 세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? 김정림 위원 : 이월금이 됩니다. 최혜정 위원장 : 2025년도 사업결과보고에 동의, 재청하십니까? 모두 : 네. 김정림 위원 : 2025년도 결산서를 보고하다. </p>		

최혜정 위원장 : 의료비는 가정간호비용인가요?

안신숙 위원 : 의료소모품 구입비입니다.

김정림 위원 : 2025년도 결산에 대하여 동의 재정하십니까?

모두 : 네.

신예순 위원 : 봄, 가을 산책은 일부 어르신만 하시는 것인지요?

안신숙 위원 : 봄, 가을에 매일하였고, 어르신을 나누어 하루에 10~12명 어르신이 산책하십니다. 어르신별 주2회정도 산책하시게 됩니다. 해피버스라고 버스 대절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, 일반버스이다 보니 버스 타고 내리는데,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사업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.

박미영 위원 :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어 헌신적으로 잘 해줍니다.

자원봉사인증교육을 받고 등록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조영희 위원 : 방배정은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지요?

안신숙 위원 : 어르신 침실이동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셔서 지양해야 하지만, 문제가 생겼을 때와 신규 어르신 오시면 맞는 어르신을 찾아야 합니다. 침실 이동 전에 보호자께 얘기 드리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

김정림 위원 : 종사자 근무복이 낡아 새로 구입이 필요합니다.

최혜정 위원장 : 근무복은 몇 년마다 지급하고 있는지요?

김정림 위원 : 3년 전에 여름 근무복을 지급하였습니다.

박미영 위원 :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도 근무복을 드리는데, 주기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. 근무복은 전문성을 부여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이 됩니다.

최혜정 위원장 : 근무복과 명찰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합니다. 긴장을 하게 하고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. 낡고 안 낡고를 떠나서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.

안신숙 위원 : 어르신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.

최혜정 위원장 : 가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은 많지 않은가요? 노화로 지방이 빠져나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가려움이 증가합니다. 콜레스테롤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렵고, 당뇨병도 가려움 증상이 나타납니다. 나이가 들면 가려움이 생기는데, 보습을 둔뿍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식사 후 갑자기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셔서 뇌허혈을 조심하세요. 더 안건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
(17:20 마침)

